

## 天符經

一	始	無	始	一	析	三	極	無
盡	本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一	積	十	鉅	無	匱	化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運	三	四	成	環	五	七	一	妙
衍	萬	往	萬	來	用	變	不	動
本	本	心	本	太	陽	昂	明	人
中	天	地	一	一	終	無	終	一

## 난랑비 서문

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

備詳神史實內包含三教接化群生且如  
 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

## 金剛般若波羅蜜經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爾時世尊食時著衣持鉢入舍衛大城乞食。於其城中次第乞已。還至本處飯食訖。收衣鉢洗足已敷座而坐。時長老須菩提在衆中。即從座起偏袒右肩右膝著地。合掌恭敬而白佛言。希有世尊。如來善護念諸菩薩。善付囑諸菩薩。世尊。善男子善女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應云何住云何降伏其心。佛言。善哉善哉。須菩提。如汝所說。如來善護念諸菩薩。善付囑諸菩薩。汝今諦聽。當爲汝說。善男子善女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應如是住如是降伏其心。唯然世尊。願樂欲聞。佛告須菩提。諸菩薩摩訶薩。應如是降伏其心。所有一切衆生之類。若卵生若胎生若濕生若化生。若有色若無色。若有想若無想。若非有想非無想。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實無衆生得滅度者。何以故。須菩提。若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即非菩薩。復次須菩提。菩薩於法應無所住行於布施。所謂不住色布施。不住聲香味觸法布施。須菩提。菩薩應如是布施不住於相。何以故。若菩薩不住相布施。其福德不可思量。須菩提。於意云何。東方虛空可思量不。不也世尊。須菩提。南西北方四維上下虛空可思量不。不也世尊。須菩提。菩薩無住相布施福德。亦復如是不可思量。須菩提。菩薩但應如所教住須菩提。於意云何。可以身相見如來不。不也世尊。不可以身相得見如來。何以故。如

來所說身相即非身相。佛告須菩提。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則見如來。須菩提白佛言。世尊。頗有衆生得聞如是言說章句生實信不。佛告須菩提。莫作是說。如來滅後後五百歲。有持戒修福者。於此章句能生信心以此爲實。當知是人不少於一佛二佛三四五佛而種善根。已於無量千萬佛所種諸善根。聞是章句乃至一念生淨信者。須菩提。如來悉知悉見是諸衆生得如是無量福德。何以故。是諸衆生無復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無法相亦無非法相。何以故。是諸衆生。若心取相則爲著我人衆生壽者。若取法相即著我人衆生壽者。何以故。若取非法相。即著我人衆生壽者。是故不應取法。不應取非法。以是義故。如來常說汝等比丘。知我說法如筏喻者。法尚應捨何況非法。須菩提。於意云何。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如來有所說法耶。須菩提言。如我解佛所說義。無有定法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亦無有定法如來可說。何以故。如來所說法皆不可取不可說。非法非非法。所以者何。一切賢聖皆以無爲法而有差別。須菩提。於意云何。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是人所得福德寧爲多不。須菩提言。甚多世尊。何以故。是福德即非福德性。是故如來說福德多。若復有人於此經中。受持乃至四句偈等爲他人說。其福勝彼。何以故。須菩提。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皆從此經出。須菩提。所謂佛法者即非佛法。須菩提。於意云何。須陀洹能作是念。我得須陀洹果不。須菩提言。不也世尊。何以故。須陀洹名爲入流而無所入。不入色聲香味觸法。是名須陀洹。須菩提。於意云何。斯陀含能作是念。我得斯陀含果不。須菩提言。不也世尊。何以故。斯陀含名一往來。而實無往來。是名斯陀含。須菩提。於意云何。阿那含能作是念。我得阿那含果不。須菩提言。不也世尊。何以故。阿那含名爲不來而實無不來。是故名阿那含。須菩提。於意云何。阿羅漢能作是念。我得阿羅漢道不。須菩提言。不也世尊。何以故。實無有法名阿羅漢。世尊。若阿羅漢作是念。我得阿羅漢道。即爲著我人衆生壽者。世尊。佛說我得無諍三昧人中最爲第一。是第一離欲阿羅漢。世尊。我不作是念。我是離欲阿羅漢。世尊。我若作是念我得阿羅漢道。世尊則不說須菩提是樂阿蘭那行者。以須菩提實無所行。而名須菩提是樂阿蘭那行。佛告須菩提。於意云何。如來昔在然燈佛所。於法有所得不。不也世尊。如來在然燈佛所。於法實無所得。須菩提。於意云何。菩薩莊嚴佛土不。不也世尊。何以故。莊嚴佛土者則非莊嚴。是名莊嚴。是故須菩提。諸菩薩摩訶薩應如是生清淨心。不應住色生心。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應無所住而生其心。須菩提。譬如有人身如須彌山王。於意云何。是身爲大不。須菩提言。甚大世尊。何以故。佛說非身是名大身。須菩提。如恒河中所有沙數。如是沙等恒河。於意云何。是諸恒河沙寧爲多不。須菩提言。甚多世尊。但諸恒河尚多無數。何況其沙。須菩提。我今實言告汝。若有善男子善女人。以七寶滿爾所恒河沙數三千大千世界。以用布施得福多不。須菩提言。甚多世尊。佛告須菩提。若善男子善女人。於此經中乃至受持四句偈等。爲他人說。而此福德勝前福德。復次須菩提。隨說是經乃至四句偈等。當知此處一切世間天人阿修羅。皆應供養如佛塔廟。何況有人盡能受持讀誦。須菩提。當知是人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若是經典所在之處。則爲有佛若尊重弟子。爾時須菩提白佛言。世尊。當何名此經。我等云何奉持。佛告須菩提。是經名爲金剛般若波羅蜜。以是名字汝當奉持。所以者何。須菩提。佛說般若波羅蜜。則非

般若波羅蜜。是名般若波羅蜜。須菩提。於意云何。如來有所說法不。須菩提白佛言。世尊。如來無所說。須菩提。於意云何。三千大千世界所有微塵是爲多不。須菩提言。甚多世尊。須菩提。諸微塵如來說非微塵。是名微塵。如來說世界非世界。是名世界。須菩提。於意云何。可以三十二相見如來不。不也世尊。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何以故。如來說三十二相卽是非相。是名三十二相。須菩提。若有善男子善女人。以恒河沙等身命布施。若復有人於此經中乃至受持四句偈等。爲他人說其福甚多。爾時須菩提聞說是經深解義趣。涕淚悲泣而白佛言。希有世尊。佛說如是甚深經典。我從昔來所得慧眼。未曾得聞如是之經。世尊。若復有人得聞是經。信心清淨則生實相。當知是人成就第一希有功德。世尊。是實相者卽是非相。是故如來說名實相。世尊。我今得聞如是經典。信解受持不足爲難。若當來世後五百歲。其有衆生得聞是經信解受持。是人則爲第一希有。何以故。此人無我相無人相無衆生相無壽者相。所以者何。我相卽是非相。人相衆生相壽者相卽是非相。何以故。離一切諸相則名諸佛。佛告須菩提。如是如是若復有人得聞是經。不驚不怖不畏。當知是人甚爲希有。何以故。須菩提。如來說第一波羅蜜卽非第一波羅蜜。是名第一波羅蜜。須菩提。忍辱波羅蜜。如來說非忍辱波羅蜜。是名忍辱波羅蜜。何以故。須菩提。如我昔爲歌利王割截身體。我於爾時無我相無人相無衆生相無壽者相。何以故。我於往昔節節支解時。若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應生瞋恨。須菩提。又念過去於五百世作忍辱仙人。於爾所世無我相無人相無衆生相無壽者相。是故須菩提。菩薩應離一切相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不應住色生心。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應生無所住心。若心有住則爲非住。是故佛說菩薩心不應住色布施。須菩提。菩薩爲利益一切衆生。應如是布施。如來說一切諸相卽是非相。又說一切衆生則非衆生。須菩提。如來是真語者。實語者。如語者。不誑語者。不異語者。須菩提。如來所得法此法無實無虛。須菩提。若菩薩心住於法而行布施。如人入闇則無所見。若菩薩心不住法而行布施。如人有日日光明照見種種色。須菩提。當來之世若有善男子善女人。能於此經受持讀誦。則爲如來以佛智慧悉知是人。悉見是人。皆得成就無量無邊功德。須菩提。若有善男子善女人。初日分以恒河沙等身布施。中日分復以恒河沙等身布施。後日分亦以恒河沙等身布施。如是無量百千萬億劫以身布施。若復有人聞此經典信心不逆其福勝彼。何況書寫受持讀誦爲人解說。須菩提。以要言之。是經有不可思議不可稱量無邊功德。如來爲發大乘者說。爲發最上乘者說。若有人能受持讀誦廣爲人說。如來悉知是人悉見是人。皆得成就不可量不可稱無有邊不可思議功德。如是人等則爲荷擔。如來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以故。須菩提。若樂小法者。著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則於此經不能聽受讀誦爲人解說。須菩提。在在處處若有此經。一切世間天人阿修羅所應供養。當知此處則爲是塔。皆應恭敬作禮圍繞以諸華香而散其處。復次須菩提。善男子善女人受持讀誦此經。若爲人輕賤。是人先世罪業應墮惡道。以今世人輕賤故。先世罪業則爲消滅。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須菩提。我念過去無量阿僧祇劫。於然燈佛前。得值八百四千萬億那由他諸佛。悉皆供養承事無空過者。若復有人於後末世。能受持讀誦此經所得功德。於我所供養諸佛功德。百分不及一。千萬億分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須菩提。若善男子善女人於後末世。有受持讀誦此經。所得功德我若具說者。或有人聞

心則狂亂狐疑不信。須菩提。當知是經義不可思議果報亦不可思議 爾時須菩提白佛言。世尊。善男子善女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云何應住云何降伏其心 佛告須菩提。若善男子善女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當生如是心。我應滅度一切衆生。滅度一切衆生已而無有一衆生實滅度者。何以故。須菩提。若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則非菩薩。所以者何。須菩提。實無有法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須菩提。於意云何。如來於然燈佛所有法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不也世尊。如我解佛所說義。佛於然燈佛所無有法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佛言。如是如是。須菩提。實無有法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須菩提。若有法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然燈佛則不與我受記。汝於來世當得作佛。號釋迦牟尼。以實無有法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故然燈佛與我受記作是言。汝於來世當得作佛號釋迦牟尼。何以故。如來者即諸法如義。若有人言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須菩提。實無有法佛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須菩提。如來所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於是中無實無虛。是故如來說一切法皆是佛法。須菩提。所言一切法者。即非一切法。是故名一切法。須菩提。譬如人身長大。須菩提言。世尊。如來說人身長大則爲非大身。是名大身。須菩提。菩薩亦如是。若作是言。我當滅度無量衆生則不名菩薩。何以故。須菩提。實無有法名爲菩薩。是故佛說一切法無我無人無衆生無壽者。須菩提。若菩薩作是言。我當莊嚴佛土。是不名菩薩。何以故。如來說莊嚴佛土者。即非莊嚴是名莊嚴。須菩提。若菩薩通達無我法者。如來說名真是菩薩 須菩提。於意云何。如來有肉眼不。如是世尊。如來有肉眼。須菩提。於意云何。如來有天眼不。如是世尊。如來有天眼。須菩提。於意云何。如來有慧眼不。如是世尊。如來有慧眼。須菩提。於意云何。如來有法眼不。如是世尊。如來有法眼。須菩提。於意云何。如來有佛眼不。如是世尊。如來有佛眼。須菩提。於意云何。如恒河中所有沙佛說是沙不。如是世尊。如來說是沙。須菩提。於意云何。如一恒河中所有沙有如是沙等恒河。是諸恒河所有沙數佛世界。如是寧爲多不。甚多世尊。佛告須菩提。爾所國土中所有衆生若干種心如來悉知。何以故。如來說諸心皆爲非心是名爲心。所以者何。須菩提。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 須菩提。於意云何。若有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是人以是因緣得福多不。如是世尊。此人以是因緣得福甚多。須菩提。若福德有實。如來不說得福德多。以福德無故。如來說得福德多。須菩提。於意云何。佛可以具足色身見不。不也世尊。如來不應以具足色身見。何以故。如來說具足色身。即非具足色身。是名具足色身。須菩提。於意云何。如來可以具足諸相見不。不也世尊。如來不應以具足諸相見。何以故。如來說諸相具足即非具足。是名諸相具足。須菩提。汝勿謂如來作是念。我當有所說法。莫作是念。何以故。若人言如來有所說法即爲謗佛。不能解我所說故。須菩提。說法者無法可說。是名說法 爾時慧命須菩提白佛言。世尊。頗有衆生於未來世。聞說是法生信心不。佛言。須菩提。彼非衆生非不衆生。何以故。須菩提。衆生衆生者。如來說非衆生。是名衆生 須菩提白佛言。世尊。佛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爲無所得耶。佛言如是如是。須菩提。我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乃至無有少法可得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復次須菩提。是法平等無有高下。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以無我無人無衆生無壽者。修一切善法則得阿耨多羅三藐三

菩提。須菩提。所言善法者。如來說則非善法是名善法 須菩提。若三千大千世界中所有諸須彌山王。如是等七寶聚有人持用布施。若人以此般若波羅蜜經乃至四句偈等。受持讀誦爲他人說。於前福德百分不及一。百千萬億分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 須菩提。於意云何。汝等勿謂如來作是念。我當度衆生。須菩提。莫作是念。何以故。實無有衆生如來度者。若有衆生如來度者。如來則有我人衆生壽者 須菩提。如來說有我者則非有我。而凡夫之人以爲有我。須菩提。凡夫者 如來說則非凡夫 是名凡夫 須菩提。於意云何。可以三十二相觀如來不。須菩提言。如是如是。以三十二相觀如來。佛言。須菩提。若以三十二相觀如來者。轉輪聖王則是如來。須菩提白佛言。世尊。如我解佛所說義。不應以三十二相觀如來。爾時世尊而說偈言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須菩提。汝若作是念。如來不以具足相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須菩提。莫作是念。如來不以具足相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須菩提。如若作是念。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說諸法斷滅。莫作是念。何以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於法不說斷滅相。須菩提。若菩薩以滿恒河沙等世界七寶持用布施。若復有人知一切法無我得成於忍。此菩薩勝前菩薩所得功德。何以故。須菩提。以諸菩薩不受福德故。須菩提白佛言。世尊。云何菩薩不受福德。須菩提。菩薩所作福德不應貪著。是故說不受福德 須菩提。若有人言 如來若來若去若坐若臥。是人解我所說義。何以故。如來者無所從來亦無所去故名如來 須菩提。若善男子善女人。以三千大千世界碎爲微塵。於意云何。是微塵衆寧爲多不。須菩提言甚多世尊。何以故。若是微塵衆實有者。佛則不說是微塵衆。所以者何。佛說微塵衆則非微塵衆。是名微塵衆。世尊。如來所說三千大千世界則非世界。是名世界。何以故。若世界實有者則是一合相。如來說一合相則非一合相。是名一合相。須菩提。一合相者則是不可說。但凡夫之人貪著其事 須菩提。若人言佛說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須菩提。於意云何。是人解我所說義不。不也世尊。是人不解如來所說義。何以故。世尊說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卽非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是名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須菩提。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於一切法。應如是知如是見如是信解不生法相。須菩提。所言法相者。如來說卽非法相。是名法相。須菩提。若有人以滿無量阿僧祇世界七寶持用布施。若有善男子善女人發菩薩心者。持於此經乃至四句偈等。受持讀誦爲人演說其福勝彼。云何爲人演說。不取於相如如不動。何以故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佛說是經已。長老須菩提及諸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一切世間天人阿修羅。聞佛所說皆大歡喜。信受奉行 金剛般若波羅蜜經

萬, 億, 兆, 京, 垓, 卍(柿, 자), 穰, 溝, 澗, 正, 載, 極, 恒河沙, 阿僧祇, 那由他, 不可思議, 無量大數:10의 68제곱.

할, 分(分), 厘, 毛, 絲, 忽, 微, 纖, 沙, 塵, 埃, 渺, 漠, 模糊, 逡巡, 須臾, 瞬息, 彈指, 剎那, 六德, 虛空, 清淨:10의 -21제곱.

## 주 기도문

The Lord's Prayer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in earth.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 one, that is indebted to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일상적인 현실 생활인들은 진실에 직접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류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은, 우리 인간들이 진실에 직접 대면하지 아니 하도록, 잘 디자인하여 꾸미고 치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습관화 되어 왔던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식적인 문화들을 형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고독하게 존재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진실에 직면할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식적인 문화들을 추종하며 살아 왔던 일상적인 삶들이, 다만 허망한 환상에 맹종하여 왔던 것이었음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극심한 심적 혼란과 통한 그리고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더욱 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영웅과 감동적인 이상 등의 허상들이 보다 더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진실을 말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부귀와 권세에 몰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 모두가 정의와 감동의 망상을 앞세우며, 진실에 대하여서는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인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서, 득도 후에도 걸식하면서 생활하였던 석가의 마음이나, 잘 살수 있는 길을 버리고서, 정의로운 로마 법정에서 담담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잔인하게 처형되도록 실행하였던 예수의 마음을, 우리 현실 생활인들은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석가의 제자도 있었고, 진실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정의로운 길로 가도록 바꾸려고 한 예수의 제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아기나 유년기에는 정의로운 영웅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아직도 젊은 날에는 감동적인 이상에 추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충분한 삶을 누린 후에는 정의로운 영웅이나 감동적인 이상의 헛된 망상들을 떨쳐 버리고서, 진실한 삶의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복된 물질문명 세계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될 것이며, 진실한 인간으로서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 가지 않는 길

The lost road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ed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 growth. Then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one them reari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hence in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me all the difference.

모든 생명체들은 매 순간 순간마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삶을 영위하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물체가 동시에 두개의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의 인생길을 모두 갈 수는 없는 것이며, 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이 선택의 결과로서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둑 놀이의 승패는 200 여 수 정도에 정해지는 만큼, 100 여 번의 선택을 잘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초반전에는 최선의 선택 점이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나, 중반과 종반전으로 진행될수록 최선의 선택 점이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한 개의 선택 점만이 남아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행로도 선택의 문제에서는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판은 평면상 361 개의 점에 불과하지만, 지금 여기 무량무변한 우주시공에서 진행되는 인생행로의 선택 점은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유아 유년기에는 무수한 인생행로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청장년으로 성장하면서 최선의 선택 가능 행로는 줄어들게 되고,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는 오직 하나의 행로만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세계로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가 같은 복제인간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이라고,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복제 인간처럼 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각 개인이 호흡하고 있는 공기나 섭취하는 음식물, 그리고 습득하는 지식정보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며, 똑같은 형상의 인생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공간을 두개의 물체가 동시에 점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영웅과 감동적인 우상 등의 헛된 망상을 떨쳐 버리고서, 담담하게 진실한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갔던, 석가와 예수는 진실의 세계를 보여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석가의 천국과 예수의 천국이 일상적인 현실 생활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인간들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같은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인 것입니다.

## 한마음 현장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一大事因緣으로 세간에 나셨으니 그는 중생으로 하여금 佛知見을 열어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불 지건을 보이고 불 지건을 깨닫게 하고 불 지건에 들게 함이니 일체 여래의 무량 무수한 교화방편도 중생으로 하여금 오직 이 불 지건을 보여 불 지건을 깨쳐서 불 지건에 들게 할 뿐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진리 구현 자는 청정 깨친 마음 두렛이(圓) 비취 일체 불행 부수고 대 각자 되신다. 또 말씀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그 마음 청정하심 따라 불 국토 이루신다. 또 말씀하십니다. 가히 돌려 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아니라 하겠거니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네가 아니고 또 무엇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만물이며, 우주며, 허공 속 건립이라. 허공이 한마음(大覺)에서 남이며 바다에서 한 개의 물거품 일음(發生)인 저. 또 말씀하십니다. 일체 有爲法은 꿈이며, 幻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며, 잠깐이기 이슬이고 번개이니 마땅히 이러히 여길지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체 智者, 일체 見者, 知道者며, 開道者며, 說道者니, 未道者에는 道를, 未解者에는 解를, 未安者에는 安을, 未涅槃 자에는 열반에 들게 하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聲香味觸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般若波羅蜜多로 일체 물질계 일체 정신계에서 걸림이 없고 일체 고액에서 해탈했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삼세 모든 불보살들은 반야바라밀다로 일체에 걸림 없고 공포 없고 지혜 이루며 마침내 성불하니 이 반야바라밀다는 大神呪며, 大明呪며. 無上呪며, 無等等呪라. 능히 일체 苦를 없애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바 모든 현상, 그 모두는 實 없는 것 만약 모든 相에 상 없으면, 곧 여래를 보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聖中에 다시 聖 일체세간의 아버지. 이三界는 모두가 나의 소유 그 가운데 중생 모두가 나의 자식. 나 한 사람만이 능히 이들을 구호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로 성불 이래 무량 백 천 만 억 겁. 그로부터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 교화 중생을 인도하고 수명은 무량 阿僧祇劫. 常住不滅.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니 실로는 멀하지 않고 언제나 법을 설한다. 마음, 마음, 마음, 한마음 한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관념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하나이거나 둘이거나 수가 아니다. 유도 아니며 무도 아니며 유무 초월의 유이거나 무도 아니다. 일체 超絶의 眞無도 아니다. 현재도 아니며 과거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다. 시간이거나 공간이거나 시공의 범주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형상, 비유, 언설,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고 생각으로 忖度할 수도 없다. 인식은 시간 공간의 인식범주에서 형성되는 것, 한마음은 시간 공간의 범주 밖의 것이므로 인식형식으로 잡을 수 없다. 직관과 사유는 念의 논리적 전개와 형식. 한마음은 念이 아니므로 念의 단순 또는 복합적 反覆으로나 논리 비논리의 전개로 어름대지 못하니 그는 사유나 직관으로 이를 수 없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들도 아니고 모두도 아니다. 그는 물질이 아니다.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다. 無常도 아니다. 無我도 아니다. 苦도 空도 不淨도 아니다. 법칙도 아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 죽는 자가 아니다. 숨은 자가 아니다. 한마음은 한 마음이다. 한마음일 뿐이다. 한마음만이 있다. 있는 것은 한마음이다. 영원과 자재와 광명과 창조와 무한과 환희가 大海의 파도처럼 끝없이 너울 치고 역동한다. 아침 해 바다를 솟아 오른 찬란, 억겁의 암흑이 찰라에 무너지고 광명 찬란, 광명 찬란, 광명만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광명만의 세계 이것이 한마음이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모든 것이 조화 있게 이미 이루어졌고 구족하다. 대성취가 자족하다. 대 성취 원만구족, 이것이 한마음이다. 한마음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대로 대 성취 원만자족성은 인정하는 만큼 한정되고 한정은 한마음 무한성의 具象的 表 動을 촉발한다. 이것이 창조다. 이것이 성취다. 한마음의 자기운동은 대해의 파도처럼 무한히 자기를 실현하고 표현하고 찰라의 쉼 없이 창조는 펼쳐진다. 그래서 성취, 성취, 환희, 환희가, 한마음의 모습이다. 한마음의 표정이다. 오직 한마음만이 있다. 다른 자는 없다. 있는 것도 바로 그다. 없는 것도 바로 그다. 그는 모두의 모두 오직 그가 있을 뿐이다. 그가 뜻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가 뜻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가 가는 곳이 길이다. 그가 서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다. 밝음은 그에게서 비롯한다. 그가 마음 두는 곳에 완전은 개화하고 뜻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하늘이 덮지 못하고 땅이 실지 못하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의 일 動 目 따라 움직이니 일체 권위란 그에게 유인하고 무애용력은 그의 맥박이다. 무엇으로도 그를 막지 못한다. 아무도 그에 이길 자 없다. 아무도 그에 대할 자 없다. 그는 영원의 승자 무한의 勇者 無上의 권위자, 그 앞에 사람 없다. 힘없다. 권위 없다. 겁약, 좌절, 실의, 절망이라는 말은 없다. 자신, 자신, 海溢처럼 폭포처럼 화산처럼 넘치고 부어대며 폭발하고 솟구치는 勇力과 자신 떨치는 위신 이것이 한마음이다. 그는 우주에 앞서 있고 시간에 앞서 있고 공간에 앞서 있고 유무에 앞서 있고 쉼—에 앞서 있고 神과 佛과 진리에 앞서 있다. 아무도 그에 先在하는 자 없다. 그는 겁 전 겁 후의 결정자. 그에게는 차별도 색채도 음향도 대립도 淨穢도 美醜 강약 大小 高低 원근도, 그 어떠한 장애도 그로되 그가 아니다. 일 通이기 때문이다. 卽 —이기 때문이다. 한 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성분별이기 때문이다. 다시 온 대지를 덮고 온 하늘을 다시 온 우주를 덮는 뜨거운 사랑. 미물도 곤충도 사자도 코끼리도 어족도 飛禽도 사람도 귀신도 다시 하느님도 그리고 유정 무정 유 상 무 상 일체 중생도 佛菩薩 성현까지도 당신의 체온으로 덮히는 따스한 사랑. 키우고 돕고 이루고 어울리고 피고 지고 뛰고 노는 영광스런 모든 생명 속성이 그의 훈훈한 사랑 혈맥의 피어남이라. 그의 뜨겁고 커다란 훈훈한 사랑이 저 태양의 햇살같이 저 꽃의 향기같이 생명 것 펼쳐내고 뿜어내고 차별 없이 하염없이 부어대는 오직 줄 줄만 아는 끝없는 사랑이 주어도주어도 끝이 없는 지칠 줄 모르는, 저 하늘과 태양과 신의 등 너머에서 온 사랑이 이것이 한마음의 체온이다. 생명 궁 겁을 꺾은 생명, 우주를 덮고 유무에 사무친 생명, 피고 무성하고 낙엽지고 몇 만 번을 반복하고 우주가 생성하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다시 티끌조차 있고 없고 그는 유무에 생성에 변멸에 壞 空에 무관한 영원한 생명, 그는 활활 자재 영겁불멸성을 이 無常變

滅과 생성과 괴공과 유무로 보이니 이것이 무량생명, 영원생명, 절대의 생명. 그에게는 滅이란 없다. 무한을 자재 로 생명 할 줄만을 안다. 그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에는 생명밖에 없는 것. 빛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 活에는 활밖에 없는 것. 몇 만 번 천지가 번복되고 생명이라는 名相이 있고 없고 생명은 푸른 하늘처럼 출렁이는 바다의 끝없는 물결처럼 영원 히 영원히 거기 살아 있다. 이것이 한마음의 수명이며 樣相. 아무리 더럽혀도 때 묻지 않고 아무리 짝어도 다칠 수 없고 아무리 때려도 상하지 않고 아무리 잡아도 죽음이 없는 영원의 불사신, 금강신, 불 思議 身이 바로 한마음의 육신이며 진신이다. 존재에 앞선 존재 이전 자. 모두의 모두 이기에 모두는 그에게서 연원하고 모두는 이미 거기 있고 그의 것이다. 풍요, 자재, 광명, 생명, 평화, 무한창조 온 몸을 온 천지를 뒤흔드는 기쁨 터져 나오는 환희 자족한 모두와 함께 있는 행복 지혜, 자비, 무량 공덕장이, 자재 조화력이 구원생명의 무진파동으로 너울 친다. 축복의 물결, 행복의 大海, 한마음은 그를 희롱한다. 그는 규정하는 자 규정받는 자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있다. 청정, 청정, 무량청정, 광명장으로 거기 있다. 햇빛 앞에 어둠이 어 루 대지 못하듯이 죄라는 어둠을 생각할 수 없다. 툭 터진 푸른 하늘 태양은 눈부시게 부서지고 밤하늘 수 없는 찬란 신비와 희망이 반짝이고 소곤대고 끝없는 청정을 흘러내듯 그에게는 청정광명만이 몸을 휘감았다. 때 묻을 수 없다. 죄지을 수 없다. 더욱이 인과며 업보가 있을 수 없다. 지옥을 가고 아귀도를 가고 수라 취를 날아도 거기에는 흰 연화 향기 나부끼고 우주의 호흡인 듯 대지의 진동, 天樂은 가득하다. 누가 있어 죄, 죄, 죄인, 죄인 하느냐, 한마음 나라에는 無垢 淸淨光 뿐인 것을! 여기에는 물질도 감각도 표상도 의지도 의식도 찾을 수 없고 일체의 인식도 대상도 현상도 본래로 없다. 그러니 어찌 罪며 業이며 報며 苦며 病이며 가난이며 厄難이란 게 있을까. 그것은 아예 없는 것이다. 이름만이 헛되게 굴러다닐 뿐 실로는 이름조차 없는 것이다. 모든 물질이 그렇고 물질계가 그렇고 모든 현상과 현상계가 그렇다. 현상이라는 환 막에 그려지는 그 어떤 두려움도 병고도 고난도 그것은 환 일 뿐이다. 인식이라는 허구적 影像에 나타나는 불안도 실의도 허망도 공포도 갈망도 분노도 슬픔도 그것은 모두 포말에 비친 찬란한 그림자. 실로는 이름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허망한 환상이나 허구적 영상에 잡히고 놀리고 할 것도 또한 이에서 벗어나고 이기고 하는 힘도 지혜도 도무지 없는 것이다. 여기 마음도 생각도 있음도 없음도 놀림도 벗어남도 힘도 지혜도 자취조차 없는 여기 구름 한 점 없는 무한으로 터진 창공 완연 청정 무애광이 蕩然 자적하는 여기 구 룡 이 亂舞하고 百花 競 美하고 萬 獸가 합창한다. 이 한마음 나라 가지 않았고 오지 않았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고 보는 데 잡는 데 부르는 데 뛰노는 데 처처에 久遠 향풍 젖었고 사람마다 면전 밝은 달 두렷하니 만인 옷소매에 청풍은 떨친다. 삼세 여래는 이곳에 머무시고 제불 정국토는 이곳에 벌어지니 일체 착한 이들 이곳에서 성불하며 일체 중생 모두가 이 나라 백성이니 대보살이며, 여래화신이며, 無上 師며 한 핏줄이다. 모두가 광명 자재 신통 묘용 萬德自存 至聖, 至嚴 至 淨, 至 祥 至樂, 至健 至 強, 至福. 恒沙功德

은 본래로 지냈고 무량 덕 상은 원래로 구축하다. 한마음, 한마음, 공덕 묘용 넘쳐나고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자재해탈 일체성취 환연히 이룩된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한 마음 한 마음, 한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다. 바로 나다. 바로 그다. 모두다. 萬德 尊 相 무량공덕 불가사의 대위신력 본연자재 대해탈신 성불해서가 아니다. 견성해서가 아니다. 업장소멸해서가 아니다. 복 지어서가 아니다. 修 證해서가 아니다. 가능성이라는 숨 藏이 아니다. 쉼해서가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觀 面 現 前 바로 있는 것이 그다. 바로 있는 네가 그다. 바로 있는 내가 그다. 본래 대로 그다. 어두울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병들 수 없고 가난할 수 없고, 속박 받을 수 없고, 겁약할 수 없고 비루할 수 없고, 악할 수 없고, 독할 수 없고 차가울 수 없고, 미울 수 없고, 모함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고, 시기 질투할 수 없고 우울할 수 없고, 불안할 수 없고 외로울 수 없고, 치우칠 수 없다. 만약 어둡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속박받거나 겁약하거나 비루하거나 악하거나 모질거나 냉정하거나 밉거나 모함하거나 배신하거나 질투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롭다거나 편벽지다면 그는 그가 아니다. 한마음이 아니다. 거짓인 그요 거짓인 너요 잘못 본 그요 잘못 본 너니 한마음은 아니다. 한마음만이 있다. 있는 것은 한마음이다. 폭풍우가 터지고, 怒濤가 터지고 화산과 地動이 터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고 불, 불, 불, 천지가 함몰하고, 태양이 떨어지고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쳐도 어두울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병들 수 없고, 가난할 수 없고 속박할 수 없고, 겁약할 수 없고, 비루할 수 없고, 악할 수 없고 독할 수 없고, 차가울 수 없고 미울 수 없고, 모함을 모르고 배신을 모르고, 질투를 모르고 우울을 모르고, 불안을 모르고 외로움을 모르고, 치우침을 모르는 이것이 한마음이다. 바로 너다. 있는 그대로의 너다. 영겁으로 변하지 않는 너다. 한마음인 너는 너인 한마음은 영원 히 영원히 한마음인 채로 있다. 한마음인 너는 저물 줄 모르는 久遠의 태양, 한마음 저는 저물 물 모르는 구원의 태양, 한마음인 모두 저물 줄 모르는 구원의 태양, 찬란, 찬란, 광명만이 가득하다. 영원 히 영원히 태양보다 밝고 죽음을 모르는 싱싱한 생명, 건강, 건강, 건강이 넘쳐흐르고 풍족한 소유물은 화수분이다. 허공을 활개 치는 자유. 용기, 용기, 하늘을 찌르는 용맹이여. 尊, 貴, 聖, 極尊의 신성과 권위는 너의 피로 흐르고 끝이 없고 限이 없는 깊이 모를 사랑. 어머니 손길처럼 영원한 仁慈. 대지를 데우는 따스함, 허공을 녹이는 훈훈함, 미워 도 미워도 미울 수 없고 보아 도 보아도 또 보아지고 감사 찬탄 감사 찬탄은 그의 입이며 신의는 그의 호흡, 믿음은 그의 심장, 四大六根은 환희의 化現이며 태산의 隱 바다같이 悠悠하다. 산천초목 일월성진 蠢動含靈 제불보살 천상천하 일체중생 뉘 아니 형제인가. 열반은 꿈속을 흘러내린 시내 생사는 그 시내에 뜬 泡沫 영원 환희 무한청정 원만. 이 모두는 한마음에서 오다. 한마음에서 이 모두는 오다. 이것이 한마음이 너다. 나여, 너여, 한마음이여! 이 유무에 뛰어난 한마음 얼굴. 궁 겁의 태양 한마음 얼굴이 나와 우주와 생명 이전의 생명임을 믿고 알고 환희 찬탄 감사로 이 자유 권위 신성 행복을 열고 누리자. 믿는 것이 있는 것

이다. 행동이 믿는 것이다.

## 순수 종교 선언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相關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절대적 자존 자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의 신성과 존엄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유인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구극의 진리인 佛性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에는 모든 덕성과 능력이 본래로 구족하다. 지혜와 자비는 그의 생리며 체온이다. 희망과 환희, 자신과 성취가 그의 맥박 이전부터 함께 있다. 사람은 본래로 축복된 자며 영원의 자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세계에는 찬란한 광명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운 기운은 대지 구석구석에 물결친다. 그러니 어디 메에 어둠이나 불안의 겁약이나 좌절이 깃들 것인가! 이것은 본래의 것이다. 빼앗길 수도 없고, 迷하였다하여 變할 수도 없다. 이것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며 현실인 것이다. 현대,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그렇지만은 않다. 원래로 이같이도 밝고 따사로운 햇빛인데, 인류의 앞길에는 첩첩이 불안의 구름이 가려보이는 것이다. 자원고갈, 환경파괴, 인구폭발, 異常氣象, 기아만연, 전쟁위기. 게다가 극도로 거칠어진 무도덕의 물결은 우리 주변 어느 한 구석도 안전지대로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곳곳하게 일어서기 벅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의 주위에는 감각과 물질위주. 유물주의의 망령이 폭풍처럼 우리의 視界를 흐리게 하고 지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의 검탈이며, 행복의 포기며, 인간의 자기부정과 통한다. 우리는 참으로 般若(지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실상을 바로 보고 인간복지를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넘치는 힘과 총만한 功德을 보고 무한의 지혜와 勇力を 발현하여 이 땅 위에 평화 번영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여야겠다. 이것은 인간본연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 삶의 지혜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날은 항상 그리워하느니라.

##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경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부드럽

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이를 받들며, 지혜로운 이를 따르며,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큰 화가 따르느니라.

## 달마대사 계송

마 음 마 음 하는 그 마음을 찾을 수 없어라. 펼치면 법계에 가득하고, 거두면 바늘 끝도 용납지 못하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구하지 않나니. 삼계가 비어 있어, 한 물건도 없음을 분명히 알았네.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면, 마음만을 찾을 지니, 다만 마음 마 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라. 내가 본래 구하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지니라.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 아니니, 마음이 생겨나면, 바로 죄가 생기는 순간이니라. 전 법 계.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구하고자 함이라. 한 송이 꽃이 피니, 다섯 잎이 되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리라.

## 의상조사 법성계

법의성품 원용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동함 없어 본래부터 고요해라 이름 없고 형상 없고 온갖 것이 끊었으니 참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 아니로다 참된 성품 심히 깊어 지극히 미묘하니 자기성품 지키랴고 인연 따라 이루더라 하나 중에 일체 있고 일체중에 하나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한 티끌 그 가운데 시방세계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다시 그러해라 한이 없어 머나먼 무량겁이 일념이요 일념이 한이 없는 머나먼 겁이어라 구세도 십 세도 서로 서로 즉 했으니 그러므로 잡란 없이 따로 따로 이루어라 처음발심 하온 때가 정각을 이룬 때요 생과 사와 큰 열반이 항상 서로 함께 했고 이와 사가 아득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열 부처님 보현보살 큰사람의 경계 러라 해인삼매 고요 속에 온갖 것을 갈무리고 불가사의 무진법문 마음대로 드러내며 온갖 보배 비 내리어 일체 중생 이익 하니 중생들이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음이라 이 까닭에 불자들은 본 자리에 돌아가서 망상 쉬지 않곤 얻을 것이 바이 없네 인연 없는 방편지어 마음대로 잡아 쓰니 본집에 돌아가서 분수 따라 양식 얻네 이 다라니 무진법문 끝이 없는 보배로써 온 법계를 장엄하여 보배궁전 이루고서 영원토록 참된 법의 중도 상에 편히앉아 억만 겁에 부동함을 불이라 이르니 라

## 감사의 기도

내 존재의 가슴 깊숙이서 나는 사랑인 나 자신에 감사합니다. 내 삶 속의 사랑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풍요와 나의

반영인 모든 외적 풍요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부유함에 감사하며,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부의 흐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재된 수 백 만 가지 흥미와 모험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움과 조화에 감사합니다. 평화와 평온에 감사합니다. 놀라움과 기쁨에 감사합니다. 웃음과 놀이에 감사합니다. 나의 선물을 나누고 봉사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摩訶般若波羅密多心境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 五蘊皆空度 一切苦厄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 乃至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陀 依 般若波羅密多 故心無佳碍 無佳碍故 無有空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 般若波羅密多 故得阿縹多羅三漢三菩提故知 般若波羅密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 一切苦 眞實不虛 故說般若波羅密多 呪 卽說呪曰, 揭諦揭諦 波羅揭諦波羅僧揭諦 苦提娑婆訶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苦提娑婆訶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苦提娑婆訶